

# ‘반짝이는’ 문화를 찾아서

## 강은교

시인

그 시절 나에게 ‘책귀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다. 더구나 그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의 서울은 오늘에 비해 딱 작았고, 어느 면으로는 좀 ‘납았다’고 해야 할는지, ‘헌책방’이 학교 앞인 광화문과 수송동 등에만 해도 여럿 있었고, 물론 우리집이 있었던 혜화동에도 있었다. 책귀신인 나는 학교가 끝나면 부지런히 그 헌책방들을 순례하는 것이 일이었다. 책의 냄새는 나를 항상 흥기증나게 했고 알지 못할 그리움을 솟게 했다. 그것은 그리움이였다. 그 그리움은 작가들의 사진을 오래오래 바라보게 하곤 했었다. 책방을 닫을 때까지 말이다. 오죽하면 헌책방 아저씨가 “참 기특한 학생이야” 하면서 나에게 책을 선물하기까지 하였을까. 그때 그 아저씨가 하던 말이 기억난다. “이건 헌책이 아니야... 우리집에 있는 유일한 새 책이거든...” 그때 받은 책은 아마도 릴케 시집이었다. 그것 말고도 한 권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릴케만 기억난다. 아뭏든 그 시절 헌책방의 순례는 나를 매일 ‘새롭게 일깨우곤’ 했었다. 韋編三絶이란 말도 있지만, 어떤 책은 몇번씩이나 빌리고... 또 빌리고... 읽고... 또 읽곤 하였었다. 덕분에 가방 속에는 항상 빌린 책이 몇 권씩 들어 있어서 불룩하곤 했었다. 아아, 얼마나 책 속의 그리움만으로도 살 수 있었던 시절이었던가. 그 속에 내 시간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던 시절... 그러니까 헌책방 덕분에 나는 니체니, 도스토예프스키, 스탕달, 릴케, 사르트르, 까뮈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다 아마 대학 때는 몇 권의 책을 그 헌책방에 팔아본 경험도 가지게 되었고, 대학원 시절에는 그 헌책방에서 귀한 책을 산 경험도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의 그리움은 일종의 갈증 같은 것이 되어 ‘나 자신의 글’을 만들어갔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의 아이가 책을 읽을 정도로 커버리자 미처 생각 못한 고민이 나에게 생겼다. 글을 쓰는 내게 아이가 읽을 책은 전혀 없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매번 그 필요한 책들을 사서 읽히자니, 그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이에게 읽힐 만하다고 생각되는 책들은 모두 화려하고 컸으며 값이 비쌌기 때문이었다. 어느새 내 주변의 세상에 ‘헌책방’이니 ‘책 빌려주는 집’ 같은 고리타분한 것들은 없어져 있었고, 그리 흔하던 문고판 세계문학전집이니 하는 것들도 보이지 않았다. 물론 아이도 내가 책을 읽던 시절의 縱組로 된, ‘냄새나는’ 책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작던 서울은 엄청나게 커다란 서울로, 낡았던 서울은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로 어느새 바뀌어 있었고...

요즘은 학생들에게 책을 권하기도 미안할 지경이다. 교재로 쓰는 책만 해도 너무 값이 비싸져 버려 정가를 다시 확인하고는 하는 형편이니까.

어떻게 하면 그 헌책방들이, 책 빌려주는 집들이, 헌책들이 쌓여 있는 채 그리움을 솟게 하는 집들이 다시 출현하게 할 수 있을까. 보고 즐길 것이 너무 많은 이 ‘반짝이는 시대’의 아이들에게 헌책, 아니 ‘책’은 이제 ‘영원히’ 재미도 가치도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일까.

헌책방은 또 그렇다치고 책을 좀 싸게 사는 길은 없을까. 싼책이 시집밖에 없는 기현상은 분명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다. 시는 너무 짧으니까 생산비가 저렴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어떤 사장님의 말씀이 아직도 통해야 하는지?

옛날의 그 문고 스타일의 좋은 책들이 많이 공급될 수 있다면... 덕분에 ‘나’라는 사람이 글이라는 것을 쓰게 된 것처럼, 누구인가 분명 놀랄 만한 좋은 글을 쓰게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문단은 물론 우리의 문화의 모양도 반짝일 것이다. 서양에서도 실컷 볼 수 있는, 반짝이는 빌딩밖에 없는 한국에 ‘작가 〇〇〇의 나라’를 찾아오는, 세계의 문화기행인들의 발걸음은 잦아질 것이다.

연재기획	2	고색창연한 목록으로부터 벗어나기 — 이중한
		오늘의 삶을 위한 지금 이곳에서의 책읽기 ①
시사초점	4	‘쌀파동’ 부른 한국농업의 실상을 벗긴다
		책으로 읽는 한국의 농업 농민 농촌 문제 총점검
교양논단	6	기억으로 보존된 정보 독서에 의해 전파되다 — 이명희
		책의 변천사 통해 본 서양의 종이와 인쇄술
화제의 인물	11	출판현장 한평생의 경륜과 열정
		「속 책은 만인의 것」 펄먼 이경훈씨
서평	12	이기백 외 「한국사상의 정치형태」 — 이태진
		김계수 외 「한국정치연구의 대상과 방법」 — 안병영
	13	유진룡 외 「예술경제란 무엇인가」 — 이종인
		해프너 「생각하는 생물」 — 최홍관
	14	김 철 「구체성의 시학」 — 정호웅
		장석주 「세기말의 글쓰기」 — 김옥동
	15	현길언 「회색도시」 — 신철하
출판화제	16	‘고쳐쓰기’ 통해 옛책의 묵은 흠 벗긴다
		「한국미술사」 등 개정판 출간 잇달아
전시회	17	책 속에 나타난 서울의 예와 지금
초대석	18	좋은 책 만들고 싶어 좋아서 출판한다
		‘문예신서’ 등 인팔리는 책 고집하는 동문선
새책읽기	19	인도기행, 그 세상속으로의 탈속
		고은 지음 「신왕요천축국전」 외
해외화제	20	영국 언론이 뽑은 올해의 책 — 오애리
		「선데이 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선정 93년의 책
세계의 책	22	미술사와 일반사의 만남과 충돌 · 외 — 배병삼
	24	독자서평
	26	화제의 신간
	28	신간안내
	36	200자 안내
	38	신간목록
	47	출판계 뉴스/재미있는 책이야기
	48	프리즘/정기구독안내

## 謹賀新年

애독자와 서평편집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994년 새해

한국출판금고 이사장 鄭鎮肅  
상임이사 崔學秀